

# 나주 귀농·청년·여성농업인 농기계 임대 혜택

### 시, 내년부터 임대료 50%서 10% 추가 감면 민선 8기 '임대사업 활성화' 공약 실현 박차

나주시가 내년부터 귀농·청년·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대폭 감면한다.

나주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귀농인과 청년·후계·여성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료를 6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은 나주시민은 50%, 마을단위 농작업 대행단의 경우에만 60%를 적용했다.

귀농인, 청년·후계·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귀농인·후계농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등록하면 계속해서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농촌 고령화, 탈농 현상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해소와 농업인 영농 편의 향상을 위해 임대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부터 전체 임대사업소 7곳에 고압 세척 장비를 갖춘 '농기계 셀프 무료 세차장'을 설

치해 농기계 사용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본격적인 밭작물 수확철을 맞아 동수동 사업소 본점에서 콩 탈곡기 100대를 임대 서비스했다.

또 대형 콩 자동선별기 3대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가을 농번기 바쁜 농가의 일손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오는 12월 16일까지 운영하는 자동선별기는 콩과 팥을 하루 평균 9t까지 선별 처리할 수 있다.

나주시지역에는 동수동 본점을 비롯해 남평읍, 금천·봉황·문평·공산·노안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 농기계 보유 대수는 전남지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총 1446대에 달한다.

농기계 임대 신청·예약은 임대사업소별 방문 또는 유선 전화(061-339-2601-7),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임대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나주시가 내년부터 귀농, 청년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사용료 60%를 감면한다.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관계자들이 임대농기계를 살펴보고 있다. <나주시 제공>

안전사용 요령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기계 임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시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 '아동학대 예방' 그림 공모전 나주시, 21~30일 접수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인 나주시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나주시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향상'을 주제로 관내 초·중학생 대상 그림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작품 분야는 수채화, 크로키, 데생, 모자이크, 캐리커처 등 제한이 없다.

접수는 1인당 1작품으로 4절 도화지(394×545mm) 규격 작품과 제출 서류를 접수기간 내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먼저 제출 서류, 작품 사진을 이메일(yyh6907@korea.kr)로 접수한 후 작품을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아동보호팀으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시는 12월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상(2명)에 20만원, 우수상(4명)에 15만원, 장려상(6명)에 10만원의 상금을 각각 시상하고 전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한 합동 캠페인은 오는 18일 오전 8시 KTX나주역 사거리 등 3개소에서 진행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 3년 연속 '우수특구'

### 중기부 지역특구 운영성과 장려상

담양군이 3년 연속 인문학교육·전통정원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담양군은 최근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가 전국 196개 특구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21년 실적)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우수지역특구 선정은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민간특구위원, 대국민평가단의 최종평가를 거쳐 특구운영 추진전략, 규제특례 활용실적 뿐 아니라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기여도를 평가해 이뤄졌다.

군은 전남 최초 국립 대학교인 송강고 개교, 담양청소년문화의집 인문학에듀센터 개관으로 인본중심 교육도시로서의 인문학교육 인프라 조성과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남도 최초 지방정원인 죽녹원 내 사군자정



원 조성, 국립한국정원문화원 유치로 전통정원의 가치를 높이고 생태정원도시 브랜드를 확립하며 우수특구로 선정, 장려상을 수상했다.

담양군은 시가문학의 산실로 풍부한 인문학 자원을 통해 2016년 전국 최초 인문학교육특구로 지정됐으며, 지역의 전통정원과 정원문화의 개발·확산을 위해 2020년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로 변

경 지정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로서 역사와 문화예술, 생태환경과 인문학 교육을 조화롭게 결합시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61년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킨 약국 내 건강 유지하려 오늘도 문 열니다"

### 강진 '최장수 약사' 추용남씨, 장학금 등 기부활동도

"돈을 떠나서 수십 년 동안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온 사람들을 봐서라도,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약국을 지켜왔죠. 지금 이 나이에 건재하게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은 저 뿐일 거예요."

추용남(87) 약사는 지난 1961년 강진에 처음으로 약국을 개업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출근 61년째 약국을 운영 중이다.

그의 10평 남짓한 약국 벽에는 1961년 발급한 '약사면허증'과 제2호 '약국허가증' 등 두 개의 빛바랜 액자가 눈에 띈다.

추 약사는 해남 북평면 좌일 출신으로 1961년 대학 졸업 후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스물 여섯에 약국을 개업했다. 당시 교통 여건상 해남 북일면이 강진의 생활권이라 인구가 많은 강진 읍내에 택한 것이다.

90세를 바라보는 고령이라 몇 해 전부터 처방약을 포기하고 일반약만 판매하고 있다.

그는 환자에게 좋은 약을 처방하기 위해 약을 뿔아 조제하던 시절 약 가루를 많이 들이마셔 생긴 직업병으로 기관지 폐질환을 앓고 있다.

자식들은 그의 건강을 염려해 약국 운영을 그만하라고 하지만, 그에게 약국 운영은 오히려 건강을 위함이다. 할 일 없이 집에 있는 게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것이라는 게 그의 얘기다.

그는 할아버지 약 심부름을 하던 꼬마들이



어른이 되어 추억의 약국에 인사차 방문하고 옛날 담소를 나누고 갈 때 행복하고 병도 함께 사라진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를 위한 그의 봉사활동도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 가을

리산자로 지난 71년 세례를 받고 단 하루도 미사를 거르지 않는 독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얻은 겸손한 태도를 좌우명처럼 항상 자신을 낮추며 살아왔다. 또한 봉사활동으로 강진 'JCI 클럽'과, 강진진로타리 클럽 1997년 회장을 거치며 '관명장학금' 3000만원을 쾌척하고 여기에 매년 PHF(폴 해리스 펠로우) 기금 1000달러를 기부하는 등 크고 작은 기부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는 부인 김영순(83)씨와 사이에 아들 삼형제를 두었다. 큰아들은 내과 전문의, 둘째 아들은 약사 등 자식농사도 남부럽지 않게 지냈다.

그는 자식들에게 자서전을 정리해 남기는 게 마지막 유산이라는 뜻도 숨기지 않았다.

/강진 글·사진=남철희 기자 choul@

# 화순군 '홍수조절지 관리' 영산강환경청과 업무 협약



구북읍(왼쪽) 화순군수와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화순군 제공>

체육시설·친수시설 조성

화순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화순군 홍수조절지(이양면 소재) 수변공간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화순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4일 화순군 홍수조절지 제1조절지(79만㎡), 제2조절지(36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친수시설 설치와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관리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양 홍수조절지는 홍수조절지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홍수조절지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시설과 생태 경관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화순군은 홍수조절지 유휴부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추진하고, 영산강유역환경

청은 화순군이 홍수조절지에 친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데 협력한다.

화순군은 홍수조절지 주변 제방 꽃과 나무 식재·관리, 제1조절지 데크로드 설치·관리, 제2조절지 주민체육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주민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친수공간으로 발돋움하도록 화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북읍 화순군수는 "화순 홍수조절지는 2013년 조성 당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태습지와 야구장, 자전거 도로 등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그간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태 경관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해 군민들이 운동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장흥군 민선8기 조직개편 윤곽

### 지방소멸 대응·청년 지원 인구정책과 신설 등

민선8기 출범 5개월여만에 장흥군의 조직개편(안) 윤곽이 드러났다.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종전 1실, 15과, 1의회, 2직속, 3사업소, 10읍·면 기구를 2실, 15과, 1의회, 2사업소, 10읍·면체제로 변경한 조직개편(안)을 상정해 지난 11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의 군의회

의결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말에 대대적인 정 기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안으로 개편된 기구를 살펴보면 지방소멸 대응, 고향사랑·청년지원업무를 위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관광자원발굴과 문학 문화·예술 강화 차원에서 문화관광과(과장 5급)를 문화관광실(4급 직장)로 승격하는 등 12팀을 신설했다.

또 2010년에 신설한 축산사업소를 축산과로 승

격, 장흥군이 명실상부한 '한우 고장'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그동안 업무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한다고 판단한 미래혁신과(블루경제, 미래전략, 생물의약)를 폐지하는 등 9팀을 이관해 지역 현안 등 신규 수요분야로 재배치하는 안을 상정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기초의회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행사(승진 교육 등)를 의회(의장)에 부여했지만, 기구(정원관리)와 예산(보수책정)은 집행부 단체장이 행사하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의회근무 공무원들은 파견체제로 근무하고 있어 단체장과 의회 의장과의 인사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강진군, 사랑의 딸감 나누기 행사 가져

### 청자로타리클럽과 25일까지 55가구에 1t씩 전달

강진군이 취약계층에 겨울나기 용 딸감을 전달한다.

강진군은 오는 25일까지 청자로타리클럽(회장 김은주)과 공동으로 사랑의 딸감나누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딸감은 강진군이 추진한 숲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55t을 수집해 재활용했으며 55가구에 가구당 1t씩 전달된다.

봉사에 참여한 청자로타리클럽은 2014년 창립되어 현재 7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이번 행사에 화물차 6대를 동원해 딸감 나르기에 참여할 계획이다.

숲가꾸기 사업은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수

목의 가지치기와 잡목 제거 등 숲이베기 작업을 하는 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딸감으로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산사태와 산불까지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사랑의 딸감 나누기 행사를 통해 옮겨올 딸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림의 가치 제고는 물론 부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장성군 "청년 창업 최대 7000만원 지원"

### 이달말까지 참여자 모집

장성군이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장성군은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장성 외 타 시·도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으로, 장성군에서 창업 예정인 자다. 사업장 소재지를 장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직업경력 7년 이내의 기존 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청년창업가는 사업화 과정, 창업교육, 멘토링, 후속 지원 등 최대 7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